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6년 4월 조사 -

2026년 5월 8일
 주식회사데이터코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trends>

경기 DI, 대폭악화가 계속, 2개월만에 2.8 포인트 저하
 ~ 원유고로 인한 조달비용 부담증가로 이익을 압박 ~

(조사대상 2만 3,083사, 유효회답 1만 538사, 회답율 45.7%,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26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감소한 41.5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원유가격 급등 및 조달 비용 증가와 가격전가 지연, 개인소비 침체로 2개월 연속 크게 후퇴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하방리스크를 떠안으며 내림세로 추이 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 및 『농·임·수산』 등 9개 업계에서 악화되었다. 지난달에 이어 긴박한 중동정세를 배경으로 한 원유가격 급등이나, 원유에서 유래한 재료 등의 공급 제약이 폭넓은 업종에 영향을 미쳐 사업 비용 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규모별로는 2개월 연속 전규모가 악화되었다. 「소규모기업」은 코로나 사태인 2022년 8월 이래 3년 8개월 만에 30대로 저하되었다. 지역별로는 2개월 연속 전10개 지역이 악화되어 5개 지역이 30대로 침체하였다.
- [이번달의 토픽스] 사업단가DI가 급상승, 판매단가DI와의 갭도 커져 기업의 가격전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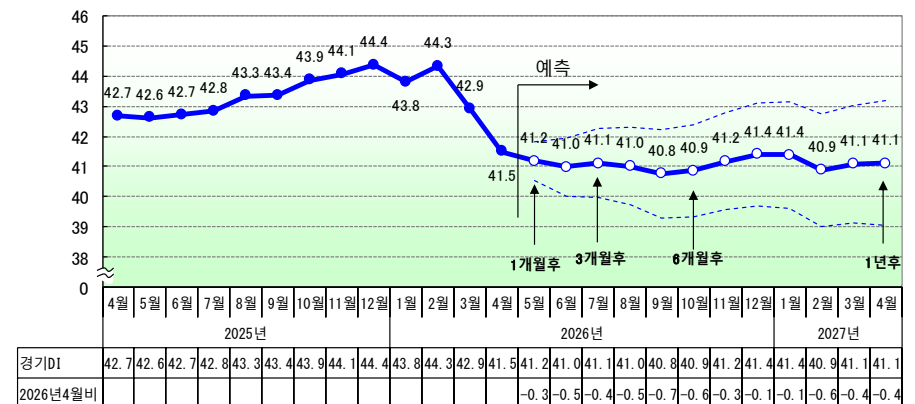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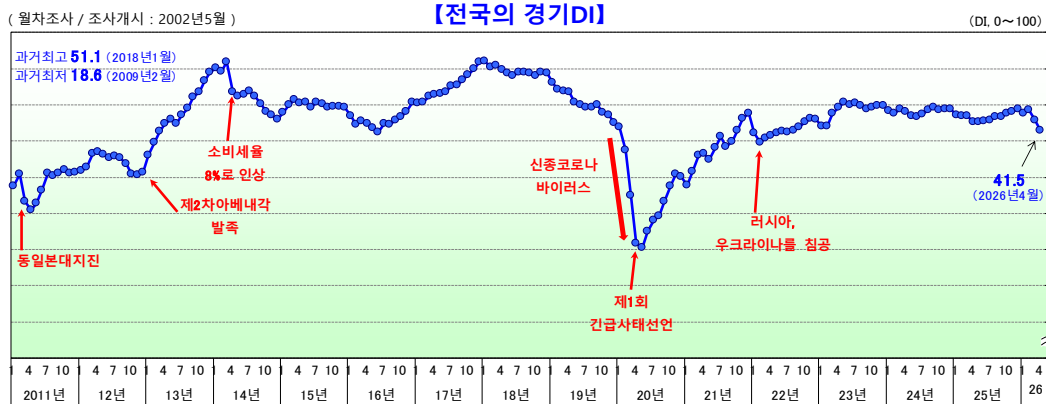
< 2026년 4월의 동향 : 대폭 하락 >

2026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감소한 41.5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원유가격 급등 및 조달 비용 증가와 가격전가 지연, 개인소비 침체로 2개월 연속 크게 후퇴하였다.

4월은 중동정세를 배경으로 하는 연료·원재료 비용의 상승이 가격전가의 진전을 상회하는 속도로 기업의 수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도료 등 재료 부족이 눈에 띄게 나타난 건설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절약 지향이 한층 확대된 것도 악재가 되었다. 한편 주가가 증가로 6만엔대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은 호조였던 한편 매출과 생산·출하량이 여전히 낮고, 고용·임금 환경도 개선경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 향후의 전망 : 내림세 >

향후는 긴박한 중동정세로 인한 원유고의 영향이 물류비 및 가계부담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장기금리 상승은 설비투자 및 주택투자의 부담이 될 것이다. 급격한 엔저(円低)진행 외에 원유 및 관련제품의 공급제약이 확대 되면 체감경기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적극재정으로 인한 성장 투자와 물가고 대책 실행, 그리고 임금상승 기대로 인한 가계의 실질구매력 회복 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하방리스크를 떠안으며 내림세로 추이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